

# 벤투, 내일 이란전 역대 축구대표팀 사령탑 최다 28승 도전

단일 재임 최다승 달성 초읽기... 홈 20G 연속 무패도 도전  
24·29일 이란·UAE와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 9·10차전

한국 축구가 11년 동안 이기지 못한 이란과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9차전을 앞둔 가운데 파울루 벤투 감독의 역대 한국 사령탑 최다승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2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과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 A조 9차전을 갖는다. 이에 맞춰 국가대표 선수들은 전날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모였다. 이미 최소 조 2위를 확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이란을 꺾고 조 1위에 올라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벤투 감독의 기록 달성 여부에 관심

이 쏠린다.

22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2018년 8월 부임한 벤투 감독은 지금까지 A매치에서 27승(10무4패)을 거뒀다.

올리 슈틸리케(27승5무7패) 전 감독이 보유한 역대 사령탑 최다승 기록과 타이다.

벤투 감독이 1승만 더 거두면 역대 대표팀 감독 중 단일 재임기간 최다승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기록 경신은 시간문제다.

단일기간이 아닌 통산 재임기간으로 따지면 A매치 최다승 1위는 1970년대 대표팀을 두 차례 이끌었던 함흥철 전 감독(작고)이다.

함 전 감독은 1974~1976년 첫 재임 기간에 25승, 1978년 두 번째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을 때, 18승을 올려 통산 A매치 43승을 기

록했다.

벤투 감독은 홈경기 무패 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사령탑 데뷔전이었던 2018년 9월 코스타리카와의 친선경기 승리(2-0)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월드컵 최종예선 UAE전(1-0)까지 국내에서 열린 19차례 A매치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홈경기 통산 성적은 15승4무.

홈 19경기 연속 무패는 1990년 이후 32년만의 최다 기록이다. 이란전에서 패하지 않으면 20경기 연속 무패 고지를 달성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란 원정에서 손흥민(토트넘)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원정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키지 못하고 1-1로 비겼다.

이란을 마지막으로 잡은 건 2011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1-0)이다.

이후 11년 동안 승리가 없다. 7경기에서 3

무4패를 기록 중이다. 통산 전적은 32전 9승 10무13패.

벤투 감독은 "최종예선을 최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점 3을 따내 조 1위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며 "조 1위를 차지해서 우리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당초 선발했던 라인업에서 변화가 생긴 점은 불안 요소다.

나상호(서울), 정우영(프라이부르크), 김진규(전북)를 대신해 조영욱(서울), 남태희(알두하일), 고승범(김천)이 합류했다. 이날도 백승호(전북)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원두재(울산)를 대체 발탁했다.

이란도 공격의 핵심인 메디 타레미, 자한바크시가 코로나19로 합류하지 못했다. 타레미(4골), 자한바크시(3골)는 이란이 최종예선에서 넣은 13골 중 7골을 책임졌다.

벤투호는 견제한 유럽과 공격라인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황의조(보르도)



와 K리그1(1부) 득점 1위 조규성(김천)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손흥민은 소집을 앞두고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예열을 마쳤다.

뉴스

## ‘멀티골’ 손흥민, EPL 사무국 선정 이주의 베스트 11

손흥민 멀티골 모두 도운 케인도 포함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이 선정한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EPL 사무국은 22일(한국시간) 2021~2022 EPL 30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왼쪽 측면 공격수엔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다.

사무국은 "손흥민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골을 넣었고, 해리 케인과 함께 다시 훌륭한 연계플레이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지난 21일 웨스트햄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다.

전반 23분 크레이그 도슨의 파울로 옐로 카드를 유도한 손흥민은 케인이 하프라인에서 찢어진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43분에는 골키퍼 우고 요리스의 골키퍼로 시작된 기회에서 케인의 패스를 받아 쇠기골을 만들었다.

리그 12호, 13호골을 넣은 손흥민은 득점 부문 공동 2위로 올라섰다. 골과 도움을 합한 공격포인트에서도 리그 2위다.

손흥민의 멀티골을 모두 도운 케인과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도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선정됐다.

제임스 메디슨(레스터), 토마 파티(아스널), 트린강(울버햄튼)은 미드필더 부문, 티모시 카스타뉴(레스터), 벤 화이트, 가브리엘 마갈랑이스(이상 아스널), 루크 아일링(리즈)은 포백에 포함됐다. 골키퍼에는 크리스토퍼 클라센(리즈)이 이름을 올렸다.

뉴스

## 여자프로배구, 코로나19 여파 결국 조기종료

여자부 남은 경기 취소...포스트시즌도 안 열려

2021~2022 V-리그 여자부가 결국 조기 종료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1일 7개 구단 단장들과 비대면 긴급회의를 갖고 2021~2022시즌 종료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다.

이날 폐퍼저축은행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 선수 1명 및 부상 선수 1명, IBK기업은행에서 추가 확진 선수 3명이 발생했다. 이에 두 팀은 리그 정상 운영 기준인 12명의 선수 엔트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KOVO는 "여자부를 다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누적 중단기간이 36일이 됨에 따라 리그 조기 종료, 리그 축소 진행 등 여러 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누적 중단기간이 36일로 매뉴얼상 조기종료를 해야 하는 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선수들의 회복 및 훈련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시즌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남은 정규리그는 물론 포스

트시즌도 열리지 않는다.

2021~2022시즌 여자프로배구는 벌써 두 차례 멈춰섰다.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한 차례 중단됐고,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총 26일 중단됐던 여자부는 KOVO와 구단들이 마련한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르면 리그 축소 운영안 2단계(중단기간 24~28일)에 해당한다. 2단계는 정규리그를 6라운드까지 마치고 포스트시즌은 치르지 않는 내용이다.

원칙대로라면 이미 포스트시즌 취소가 발표됐어야 했지만 KOVO는 지난 11일 7개 구단과 합의해 남은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KOVO는 여자부 인건비 상승, 유지, 팬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KOVO와 구단들의 계획은 끊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일 겨우 재개된 여자배구는 폐퍼저축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부상자와 확진자가 나오면서 리그 운영이 어려워졌다.

결국 KOVO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리그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리그 종료 결정을 내렸다.

여자부 조기 종료로 인해 이번 시즌에는 우승팀이 없다. 정규리그 최종순위는 중단 시점 직전 라운드인 5라운드까지의 순위를 반영해 1위 현대건설, 2위 한국도로공사, 3위 GS칼텍스, 4위 KGC인삼공사, 5위 IBK기업은행, 6위 흥국생명, 7위 폐퍼저축은행으로 마무리됐다.

V-리그는 2년 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3월 시즌을 조기종료한 바 있다. 당시에는 남자부와 여자부가 모두 시즌을 중단했다.

한편, 이날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흥국생명전은 이번 시즌 여자부 마지막 경기였다.

GS칼텍스는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0(25-19 25-23 25-21)으로 완파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대전 총무체육관에서 벌어진 남자부 경기에서는 OK금융그룹이 삼성화재를 세트 스코어 3-1(26-24 25-23 25-14 25-20)으로 물리쳤다.

OK금융그룹은 3연패를 끊고 5위(17승17패 승점 44)를 유지했다.

조재성이 18점, 박승수가 17점을 책임졌고, 차지환이 13점을 올렸다. 박창성은 블로킹 5개를 포함해 12점을 기록했다.

## 고진영, 8주째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사수

고진영이 여자골프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켰다.

고진영은 22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9.99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1일 랭킹에서 1위를 되찾은 고진영은 8주째 최상단을 사수했다.

고진영에게 자리를 내줬던 넬리 코다(미국)가 9.03으로 2위를 기록했다. 두 선수의 격차는 0.96점이다.

지난주 LPGA 투어 대회가 치러지지 않았던 탓에 상위권 순위는 큰 변동이 없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3위를 지켰고, 박인비와 김세영이 각각 6위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캐나다의 브룩 헨더슨은 2계단 상승한 9위로 톱10에 새롭게 가세했다.

2주 간 휴식을 취한 LPGA는 24일 JTBC 클래식 프리젠티브 바이 바바솔을 통해 재개된다.



'팀킴'의 김은정이 21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열린 2022 여자컬링 세계선수권대회 예선 4차전 미국을 상대로 투구하고 있다. '팀킴'은 미국을 11-4로 꺾어 4승을 올리며 일본, 스위스와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여자컬링 '팀킴', 미국 꺾고 세계선수권 4전 전승

첫 메달 기대...오늘 스코틀랜드·이탈리아와 예선 5·6차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킴'(강릉시청·스킵 김은정)이 미국을 꺾고 2022 세계컬링연맹(WCF) 세계여자선수권대회 전승 행진을 이어갔다.

스킵 김은정, 리드 김선영, 세컨드 김초희, 서드 김경애, 후보 김영미로 이뤄진 팀킴은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열린 대회 예선 4차전에서 미국의 '팀 크리스텐슨'(스킵 코리 크리스텐슨)을 11-4로 완파했다.

팀킴은 이로써 예선 4전 전승을 거뒀다. 20

일 예선 1차전에서 노르웨이에 7-6으로 신승을 거둔 팀킴은 21일 열린 2, 3차전에서 독일과 체코를 각각 7-2, 8-7로 연파했다.

세계선수권 첫 메달 기대도 커졌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팀킴은 이번 대회에 앞서 세 차례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는데, 메달을 딴 적은 없었다. 최고 성적은 2018년 대회의 5위다.

팀킴은 23일 스코틀랜드, 이탈리아와 예선 5, 6차전을 치른다.

## 오타니, 시범경기 첫 등판서 최고 159km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가 시범경기 첫 등판서 최고 99마일(약 159km)의 빠른 공을 던졌다.

오타니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 디아블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 2⅓이닝 3

피안타 5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일본메체 풀카운트에 따르면 오타니의 최고 구속은 99마일까지 나왔다.

투구수 50개를 채운 오타니는 곧바로 에릭 토레스와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다.

뉴스